



2004년도 시멘트 결산서

김 재 열 (한국양회공업협회 기획팀 대리)

1. 2004년 국내 경제동향

금년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호조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약 4.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로 인해 올 상반기를 정점으로 경기가 다시 하락하는 양상으로 상반기 중 5.4%의 성장세가 하반기 중 수출증가세 둔화, 내수 회복세 지연 등으로 둔화됨에 따라 연간으로도 4%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최근의 소비지표의 부진과 그 원인인 고용불안 및 과중한 가계부채 등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 중에도 기술적인 반등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의 증가세, 수출 호조에 따른 투자압력 증가,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재무상황 개선 등으로 하반기 중 7%대의 회복세가 기대되나 건설투자는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규제강화와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급격한 둔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하반기 중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상반기의 약 130억 달러보다 축소되어 연간으로는 약 200억달러를 소폭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물가는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과 그동안 높게 유지되었던 원화 환율의 영향이 국내 물가상승 압력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약 3%대 후반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2. 2004년 국내 건설동향

지난해에 일반 주거지역 구분 세분화 및 용적률 강화를 앞두고 대거 아파트 건설에 착수하는 등 재건축 사업과 민자사업이 늘어나면서 건설경기를 이끌고 저금리와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자금이 부동산 투자로 몰려들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였다.

금년들어 이러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가수요의 급격한 이탈은 물론 실수요까지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냉각시킴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6%를 상회하던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금년에는 2%대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건설지표 가운데 먼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을 살펴보면 외환위기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1998년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두자릿수의 증가로 2002년의 허가면적이 이미 1997년보다 42.0%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는 2003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감소세로 돌아서 연간 2.4% 증가에 그쳤고 금년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고 감소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금년의 전년대비 건축허가 추이를 월별로 보면 1월(41.5% ↓), 2월(2.7% ↑), 3월(32.8% ↓), 4월(19.2% ↓), 5월(6.6% ↑), 6월(55.7% ↓), 7월(33.0% ↓), 8월(1.9% ↑), 9월(3.0% ↑), 10월

〈표-1〉 연도별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10월		
					전년대비		
용도별	주거용	41,283	47,856	57,320	62,128	35,117	68.1
	상업용	18,882	25,888	49,862	45,809	26,415	67.6
	공업용	11,646	13,538	15,366	14,738	11,776	92.3
	문교사회	5,126	5,534	7,489	7,920	6,958	104.7
	기타	4,122	4,901	8,697	11,513	9,314	98.1
구조별	철골조	75,292	91,562	136,221	139,965	87,949	74.8
	조적조	2,056	2,056	2,074	1,759	1,288	84.7
	목조	178	181	171	373	342	102.8
	기타	3,533	3,918	268	11	1	5.3
합계	81,059	97,717	138,734	142,108	89,580	75.0	

* 자료 : 건설교통부.

(5.4% ↓) 하여 1~10월 누계치는 89,580천㎡로 전년동기대비 2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 6, 7월의 감소폭이 컸던 것은 전년의 법령 개정을 앞둔 일시적 증가로 인한 반사효과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용도별 실적을 보면 주거용과 상업용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전년의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주택건설실적이 301천호에 그침에 따라 최근 5년 평균 386천호에 비해 22%가 줄어들고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규제 강화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전년동기간보다 각각 31.9%, 32.4% 감소하였고 공업용도 내수부진에 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7.7% 줄어들었다. 문교사회용 건축허가면적은 지속적인 학교시설 증축 등으로 전년동기

〈표-2〉 연도별 건축착공 동향

(단위 : 천㎡,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10월		
					전년대비		
용도별	주거용	26,730	33,206	40,086	42,060	30,846	87.9
	상업용	14,109	20,165	38,131	38,270	23,858	73.0
	공업용	10,126	9,594	13,476	13,212	10,347	91.9
	문교사회			5,777	7,301	5,018	81.7
	기타	6,875	7,797	7,669	8,122	8,358	131.3
구조별	철골조	52,682	65,157	102,962	107,193	76,989	85.5
	조적조	1,751	1,908	1,818	1,494	1,148	87.3
	목조	120	106	140	269	290	123.6
	기타	3,287	3,591	219	9	0	1.4
합계	57,840	70,762	105,139	108,965	78,427	85.7	

* 자료 : 건설교통부.

* 주 : 문교·사회용은 2002년 1월부터 조사.

〈표-3〉 연도별 건설수주 동향

(단위 : 억원, %)

구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10월	
						2004년 1~10월	전년대비
발주자별	공공	131,226	196,142	181,190	199,383	137,161	98.5
	민간	259,190	286,773	410,038	600,676	380,649	76.4
	제조업	28,595	27,120	32,707	47,087	60,582	148.8
	비제조업	230,595	259,653	377,331	553,589	320,067	69.9
	국내외국기관	914	1,121	1,881	1,526	1,186	93.1
	민자	26,445	25,913	25,462	29,136	23,270	118.0
공사종류별	건축	272,847	308,819	415,266	600,265	386,662	77.9
	주택	200,312	215,422	296,659	431,950	253,686	69.8
	비주택	72,535	93,397	118,607	168,315	132,976	100.3
	토목	143,536	199,682	201,835	228,990	150,976	93.6
	전문공사	1,392	1,448	1,470	1,466	4,628	440.3
합계	417,775	509,949	618,571	830,721	542,266	82.3	

* 자료 : 통계청, 최근년 「건설업통계조사」에 근거해서 총 가계약의 54%에 해당하는 가계약 순위 상위업체.

대비 4.7% 증가하였으며 기타(농수산용, 공공용)는 민자사업의 감소로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1〉 또한 지역별 실적을 살펴보면 10월까지 수도권 46.2%, 지방 13.9%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 건축허가면적과 같이 발표하는 건설경기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건설동행지수인 건축착공면적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추세는 건축허가면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2〉 건축허가면적과는 달리 문교사회용이 지난해의 급증에 따른 반사효과로 두자릿수의 감소를 나타내었고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모두 감소하여 건설경기의 침체국면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건설선행지표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수주동향에 따르면 2004년 10월까지의 국내 건설공사 총수주액은 54조 2,26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분이 38조 649억 원으로 전년대비 23.6% 감소한데 비해 공공부분은 13조 7,161억 원으로 전년대비 1.5% 감소에 그쳤다. 공종별로

는 건축공사가 38조 6,662억 원으로 전년대비 22.1% 감소하였으나 토목공사는 15조 976억 원으로 전년대비 6.4% 줄어들어 예년과는 달리 민간부분의 건축, 특히 주택부분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택부분의 감소는 부동산 규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전년에 비하여 크게 위축된데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월별로 볼 경우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최근인 10월만 반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시멘트 수급동향

가. 내수

시멘트는 건설의 주요 기초소재로 건설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아울러 건설공사의 외부요인인 기상여건도 무시 못할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기와 일기에 따라 시멘트 수요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건설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의

〈표-4〉 2004년 시멘트 수급실적

(단위 : 천톤, %)

구 분	수 요			공 급			재 고
	내 수	수 출	계	생 산	수 입	계	
1/4 분기	11,360 (100.5)	601	11,961	11,601 (99.6)	593	12,194	1,452
2/4 분기	16,004 (96.8)	673	16,677	15,702 (93.6)	1,051	16,753	1,528
상 반 기	27,364 (98.3)	1,274	28,638	27,303 (96.1)	1,644	28,947	
3/4 분기	12,584 (93.1)	701	13,285	12,743 (89.2)	839	13,582	1,825
4/4 분기	15,052 (88.8)	634	15,686	14,307 (86.8)	873	15,180	1,235
하 반 기	27,636 (90.7)	1,335	28,971	27,050 (87.9)	1,712	27,923	
합 계	55,000 (94.3)	2,609	57,609	54,353 (91.8)	3,356	57,709	

* 주 : 12월은 추정치, 연간 크링카 수출 1,343천톤 별도, ()는 전년동기대비.

경우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줄곧 늘어나던 건축허가 면적이 2003년 3/4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실물에 반영되는 약 6개월 이후인 금년 2/4분기의 내수가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기의 경우 평년의 연강수량이 1,400mm 정도이고 연중 2~3개의 태풍이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나 금년의 경우 11월까지 1,472mm(서울 기준)로 동기간의 평년값(30년간의 평균강수량) 1,320mm보다는 많았으나 전년동기간의 2,005mm에 비교할 경우에는 강수량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같은 하절기의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없어 일기 조건은 전년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의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1/4분기 0.5% ↑, 2/4분기 3.2% ↓, 3/4분기 6.9% ↓, 4/4분기 11.2% ↓ 등으로 예상되어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5.7% 감소한 55,000천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표-4〉

(1) 계절별 출하실적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들어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다. 이러한 기후 변화속에 연중 건설공사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고 여름과 겨울은 우기와 혹한으로 비수기가 되는 등 계절과 일기의 상태에 따라 시멘트의 소비도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인 소비재 상품과 구분되는 특징도 최근 들어서는 건설공법의 발달로 점착성·비수기의 구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10년간 출하의 계절지수를 살펴보면, 연간 평균치를 100으로 볼 때 1월과 2월은 이에 훨씬 밑도는 60선에도 미치지 못하여 비수기임을 확연히

<표-5> 최근 10년간(1995년~2004년) 시멘트 내수의 계절지수 및 출하비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1/4분기	4월	5월	6월	2/4분기	상반기	7월	8월	9월	3/4분기	10월	11월	12월	4/4분기	하반기
계절지수	52.0	57.2	106.2	71.8	117.7	118.4	112.5	116.2	94.0	97.3	97.2	103.1	99.2	120.4	118.2	99.9	112.8	106.0
구성비	4.4	4.9	8.9	18.2	9.8	9.9	9.4	29.1	47.3	8.0	8.0	8.5	24.6	10.0	9.8	8.4	28.2	52.7

보여주고 있으며, 3~6월로 이어지는 2/4분기와 9~11월이 연중 성수기를 이루며 7월, 8월, 12월은 100선에 위치하여 평균정도의 출하수준을 보이고 있다.(<표-5>)

한편 2004년의 분기별 출하구성비를 살펴보면 1/4분기 20.6%, 2/4분기 29.1%, 3/4분기 22.9%, 4/4분기 27.4%로 2/4분기가 피크를 기록하였고, 반기별로는 상반기 49.7%, 하반기 50.3%로 각각 27,364천톤, 27,636천톤을 출하하여 하반기가 불과 272천톤 더 많은데 그쳤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상하반기 구성비인 47.3%, 53.7%보다 상반기가 3.0% 포인트 늘어난 형태로 “상반기 내수가 하반기 보다 많을 수 없다”는 통념을 깨는데 근접한 수치로서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시멘트 내수감소가 하반기로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시멘트 국내출하는 크게 관급공사의 자재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수요별 출하구분과 포장이나 그렇지 않느냐의 외형적인 면을 나누는 출하형태별 구분 방법이 있다.(<표-6>)

먼저 수요별 실적을 살펴보면 10월까지 전체 국내출하 45,189천톤 중 민수가 44,561천톤으로 98.6%를 차지하였으며 관수는 1.4%인 628천톤에 그쳤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동일한 비율로 지금까지 민수 비중이 최대의 실적을 보였던 2002년의 98.7%와도 근접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민수의 비중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정체된 현상은 민수 비중의 증가가 한계에 이르러 관급조달 형태가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품종별 출하실적을 살펴보면 벌크 출하는 수입 시멘트를 포함하여 10월까지 41,010천톤으로 90.8%로 파악되어 전년동기의 89.9%보다 0.9% 포인트 증가하여 연말까지의 실적을 감안하면 전년의 90.0%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벌크화율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은 신속, 편리한 잇점을 지닌 레미콘의 사용이 대형·고층 건축물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주택건설에도 일반화된 시멘트 소비양태로 변화된데다 최근의 건축물이 고층화되면서 슬럼프치를 상향하는 등 품질향상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일본의 경우에도 2003년의 벌크화율이 95.6%에 달하는 점을 보더라도 앞으로 4~5%의 벌크화율 증가가 예상된다.

나. 생 산

시멘트는 석회석의 채광, 분쇄, 소성과정을 거쳐 중간제품인 크링카로 만들어진 다음 이 크링카를 분쇄하여 시멘트라는 완제품으로 생산되어진다. 먼저 반제품인 크링카의 생산실적을 보면 전년보다 6.8%

<표-6> 2004년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단위 : 천톤,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10월	전년대비
수요별	민수	46,930	49,283	53,603	57,505	44,561	94.8
	관수	1,070	772	689	797	628	96.5
	민수비중	97.8	98.5	98.7	98.6	98.6	
품종별	포장	5,313	5,646	5,919	5,831	4,179	86.6
	벌크	42,687	44,409	48,373	52,471	41,010	95.8
	벌크화율	88.9	88.7	89.1	90.0	90.8	
합계		48,000	50,055	54,292	58,302	45,189	94.9

감소한 48,052천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10,565천톤(0.9% ↑), 2/4분기 13,249천톤(6.6% ↓), 3/4분기 11,736천톤(12.4% ↓), 4/4분기 12,502천톤(7.6% ↓) 등으로 1/4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3/4분기의 감소가 두드러져 보인다.

아울러 완제품인 시멘트 생산은 1/4분기 11,601천톤(0.4% ↓), 2/4분기 15,702천톤(6.4% ↓), 3/4분기 12,743천톤(10.8% ↓), 4/4분기 14,307천톤(13.2% ↓) 등으로 점차 감소폭이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며 연간으로도 전년보다 8.2% 감소한 54,353천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총 50개 기업의 금년 가동율은 77.7%로 예상되어 1996년 92.5%, 1997년 94.7%는 물론이고 전년의 83.4%에도 훨씬 못미치는 저조한 가동율에 머물 것으로 보여진다.

다. 수출입

금년 3/4분기 이후 급격한 환율하락은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였으나 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해왔던 수출단가가 지난 2분기 이후 상승하여 환율하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였다. 올초부터 이어져온 미국, 중동 지역에서의 시멘트 수요 급증세와 함께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세계적인 선박 부족 현상 등에 힘입어 시멘트의 국제시세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바 내년에도 수출에 주력해야 하는 우리나라 시멘트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수년간의 건설경기 회복세가 금년을 기점으로 감소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시멘트 국내수요는 위축되었으며 시멘트 업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물량 증대에 나선 결과 올해 수출실적은 약 3,952천톤으로 전년대비 25.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실적을 보면 금년도 수출대상국은 17개국으로 전년의 13개국과 비교시 4개국이 늘었으나 역시 중국으로의 수출은 없었으며 중동의 아랍에미레

〈표-7〉 주요 국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2003년	2004. 1 ~ 11
미 국	1,699	1,599
일 본	824	726
U.A.E	-	527
가 나	68	250
베 트 남	26	87
나이지리아	76	42
칠 레	-	42
아이보리코스트	141	35
토 고	128	34
앙 골 라	20	34
방글라데시	103	34
모잠비크	-	33
시에라리온	-	20

* 주 : 크링카 포함.

이트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

품종별로 보면 시멘트는 2,609천톤으로 전년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크링카는 1,343천톤으로 전년보다 무려 151.1% 증가하여 전체 수출 실적의 증대를 가져왔다. 전체 수출에서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의 경우 66.0%로 전년의 83.0%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표-8〉)

이는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로의 크링카 수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다소 주춤했던 서아프리카제국으로의 크링카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띤 때문으로 크링카 수출단가의 상승세 또한 크링카 수출 증가세의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크링카 수출 포함 동양 1,237톤(9.0% ↓), 쌍용 2,304천톤(64.0% ↑), 한일 6천톤(17.0% ↑), 한라 405천톤(7.8% ↑)으로 추정되며 동양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세로 나타났다. 특히 쌍용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미국과 중동으로의 수출물량 증대에 기인하며 금년에는 내륙사와 연안사간의 교환수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표-8〉 연도별·품종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E)
크링카	940	1,645	905	535	1,343
시멘트	3,946	3,001	2,488	2,612	2,609
합 계	4,886	4,646	3,393	3,147	3,952

〈표-9〉 연도별·품종별 수입실적
(단위 : 천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E)
크링카	162	96	3	70	19
시멘트	518	989	1,189	1,809	3,356
합 계	680	1,085	1,192	1,879	3,375

대부분의 시멘트 수출형태는 벌크로 2,599천톤, 포장수출은 10천톤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통적으로 수급조절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수입은 최근 들어 양상이 크게 변화하여 여전히 공급과잉 상태인 국내 시멘트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여 금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85.5% 증가한 3,356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급격한 환율하락으로 내년에도 시멘트 수입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표-9〉)

작년 하반기 이후 급증해온 중국산 시멘트의 경우 금년에는 2,226천톤으로 전년보다 128.8%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일본산 또한 전년보다 36.1% 증가한 1,130천톤으로 예상된다.

크링카 수입은 19천톤에 불과하겠으나 시멘트는 3,356천톤으로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4%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수입산 시멘트의 급증세는 중국내 긴축정책 기조에 따른 중국내 시멘트 수요 감소세와 동부연안 대형 업체의 수출 여력에 기인하며 지속적인 일본의 국내수요 약세 또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값싼 시멘트를 들여오려는 국내 기타 업체들의 경쟁적 수입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재 고

시멘트는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생산능력의 변동이 쉽지 않은데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수송상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며 부피가 크고 중량물인 관계로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시멘트 수요는 계절

과 건설경기에 따른 변동폭이 심하여 적정재고라는 개념 또한 항상 변동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금년의 시멘트 재고추이를 보면 전년말 이월재고는 1,226천톤으로 금년의 공급이 57,709천톤(수입 3,356천톤 포함), 수요가 57,609천톤(수출 2,609천톤 포함)으로 예상되어 연말재고는 1,235천톤에 머물 것으로 보여진다.〈표-10〉)

지난해에는 크링카와 시멘트를 합친 재고가 3,000천톤을 넘어선 경우가 비수기인 3/4분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났으나 금년은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비수기인 1/4분기와 3/4분기는 물론이고 성수기인 2/4분기중에도 비수기 수준의 재고를 보유하여 재고추이로도 내수부진을 가늠케 하였다.

마. 수 송

생산 및 내수의 증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송은 내수 감소의 여파로 인해 최근 5년간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10월까지의 수송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의 49,402천톤보다 6.1%가 감소한 46,379천톤을 수송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실적을 수송수단별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철도와 해송은 각각 8.6%, 7.3%의 감소를 보여 감소폭이 비교적 큰 반면, 육송은 2.6%로 소폭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송실적 분담비에서도 볼 수 있어 육송 35.1%, 해송 33.9%, 철도 31.0%순으로 육송의 비중이 수송수단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수송량이 많을수록 육송의 비중이 높아지

〈표-10〉 2004년 월별 크링카 및 시멘트 재고 추이

(단위 : 천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크링카	1,522	1,813	1,741	1,491	1,393	1,246	1,761	1,769	1,708	1,352	1,337	1,277
시멘트	1,594	1,655	1,452	1,493	1,523	1,528	1,501	1,644	1,825	1,505	1,326	1,235

고 수송량 감소시에 분담율이 낮아졌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수송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송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아주 특징적인 것으로, 아마도 상대적으로 높은 운반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트럭이 타수송수단에 비해 가지는 장점인 적기확보와 현장수송의 용이성 때문에 기인한 듯하다.

철도의 수송분담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철도화물요금이 계속적으로 인상되는 것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과 업체에서 사용 가능한 철도수송력이 일정 부분 한계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해송의 경우도 내수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의 일환으

로 연안업체들이 시멘트의 판로를 해외로 돌려 수출물동량이 전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해송의 내수물동량 감소폭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멘트 업계에서는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건설경기가 불투명함에 따라 유통비 부담을 줄이고 성수기에 시멘트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항만 및 싸이로 등 유통기지와 사유화차, BCT, 선박 등 수송수단에 대한 물류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

시사 용어 해설

▶ 종합부동산세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국세로 누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이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토지와 주택의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과표를 인상하는 데 소극적이고, 이중과세에 대한 부동산 과다보유 계층의 저항과 투기 억제 효과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가지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